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노몬한事件

一

去十一日 滿蒙國境方面에서 滿蒙兵衝突事件이 勃發하엿는데 이것은 外蒙兵의 不法越境으로 起因된것이다. 이날의 戰鬪는 實로七時間에 及하엿고 翌日에도 노몬한附近에 不法行爲가 繼續되므로 日滿共同防衛軍은 十五日 夜襲을 敢行하여 이를 國境外로 擊退하엿는데 二十日에는 外蒙兵二百餘가 또 노몬한附近에 侵入하엿고 翌日에는 四百餘가 越境하여왓스므로 滿軍은 이를 擊退하엿섯는데 外蒙軍은 이陸上侵入과 並行하야 空軍을 派遣하야 五機 或十餘機隊로 偵察 掃射等 不法行爲를 하엿스므로 滿軍은 이를 迎擊하여 그中七機를 擊墜하엿다는데 이 노몬한事件은 外蒙으로부터 脫走한 빈바大尉가 暴露한 黑暗外蒙의 政情을 隱蔽하려는 企圖가아닌가 하는 點에서 고프大將脫走後에 發生된 張鼓峰事件과 恰似하여서 世人의 注目을 끌고잇다.

二

元來 이노몬한附近은 海爾拉西方百七十키로나되는 하루하河流域에 잇는곳으로 分明한 滿洲領土이다. 그러데 外蒙兵은 滿洲里 滿蒙會議가 決裂된後에 國境線의 不分明을 口實로 하여서 侵入行動을 敢行한것이라고 볼수가잇다. 뿐만아니라 黑暗속에 차이여잇는 外蒙의 最近政治的情勢가 빈바大尉의 脫走로 因하야 外間에 暴露되자 이것을 擁蔽하려고하는 一種의 意識的牽制行爲로도 볼수잇는것이다.

三

元來外蒙은 支那에隷屬하엿다가 一九一一—二年에 民族解放을 目的으로한 獨立運動이 勃發하엿는데 露西亞에서는 이것을 援助하여 即時 外蒙獨立을 承認까지하엿스나 一九一三年 露支間 北京會議의 結果로 獨立을 取消하게되엇고 一種自治制를 施行하엿스나 一九一九年徐樹錚의 鎭壓으로 自治政府까지 撤廢되고 支那隷屬으로 復歸하엿다. 그러나 露西亞革命以來 赤露에서 敎養을 바든 靑年革命黨은 一九二一年 買賣城에서 外蒙人民臨時政府를 組織하고 革命軍을 編成하여 革命運動을 擴大强化하여 一九二二年에 外蒙全域은 革命政權의 旗下에 服從케되엇섯다. 그러나 革命黨은 舊勢力의 王公貴族階級과 妥協하여 活佛을 擁立하고 立憲君主의 國體를 樹立하엿다가 一九二四年 活佛의 死去로因하여 完全히 蒙古國民共和國을 設立하엿는데 이것은 勿論 露西亞의 暗示에 依한 赤色露西亞의 指令下에 된것이요 그後의 政治, 社會, 經濟, 其他各般制度와 組織에잇서서 赤露를 模倣하엿기때문에 外蒙은 宛然 赤露의 一地方과 가튼 感이 잇섯던것이다.

四

外蒙의 軍隊組織은 約七個師團十五萬으로 되어잇는데 이外에 蘇聯의 赤軍이 狙擊師團 一、騎兵師團 一、機械化 三旅團及飛行隊가 잇다 그러므로 外蒙赤軍의 總力은 三軍團 九個師以上으로 各要地에 配置되여잇는 現狀이라고한다 이와가튼 兵力을 가지고 蘇聯의 使嗾下에서 相當 滿洲國境의 不法侵入을 敢行하고 잇는것인데 이번의 노몬한事件도 이와가튼 動機로 實行된것이다 그러나 今

租界抗日勢力排擊 軍力行使는當然
外國의容喙干涉은斷然不許

租界問題와 情報部長談

情報部長談

【東京電話同盟】上海其他에서의 租界問題는 支那事變現段階에서 새로운國際問題로서 重視되고잇는바 右에關하여 外務省河相情報部長은 廿四日 左와如히 말하엿다

厦門、上海、天津等의共同 又는 專管租界의 性質은 支那主權이 關係國에 行政的制限을맛고 잇는데 不過하고 租界는領土가 아니다 따라서 支那의主權이 업서진것이 아니고 其統國內에서 主權이 不活動狀態에 빠저잇는것이다 其土地가 各國行政權內에 잇서서도 主權이消滅한것이 아니다 現在 戰爭狀態에 잇서 支那主權은 占領地域內에서는 日本의 支配下에잇스며 租界는모두 日本의 支配下에 잇는것은 當然한바 支那가租界에잇서서 武力的行動에나오는 擾亂이를 排除하는것은 何等容異할일이아니다 抗日테로行爲 又는 文書 宣傳等은 現在의情勢下에서 支那事變의 軍事行動의 一部가 잇스나 어느 意味로서 非常時機이만큼 日本의參與增强의 理由가 잇는것이다 租界行政權에 對하여는 日本은恒常嚴格한 注意를 가지고 行使해왓는데 外國의 容喙干涉은 斷然 不許하는바이다 租界는 支那와 關係各國間에 行政機構改善을 圖謀할 必要는 조금도업는것이다 實際로 擾亂을 改革할必要가잇스면 時에 着手할것으로 上海에서 三浦總領事의提出한 要求는 現實에即한것으로 關係國에서는 確認하리라고 본다 租界土地章程을 넘어 租界의 人的構成의 參事會員問題에 關한問題에 對하여 모름지기 果斷잇는 態度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寫眞은 河相情報部長)

聯盟諸加入國에 對支個別援助勸告?
支提訴와 理事會審議結果

【제네브二十三日發同盟】第百五回 聯盟理事會는 二十三日午後 秘密會議를 開하여 蔣政權의 支那代表의 對蔣援助 要請提訴를 審議하엿다 그結果 聯盟規約의 要求한

一、對支財政的 物質的援助와 對日軍需品과 侵略戰爭의 資材品輸出禁止

一、以上을 具體化하기위하여 一般的又는 特殊利害關係國만의 調査委員會의 設置

一、其他 對支援助와 侵略阻止에關하는 總會와 理事會의 諸決議의實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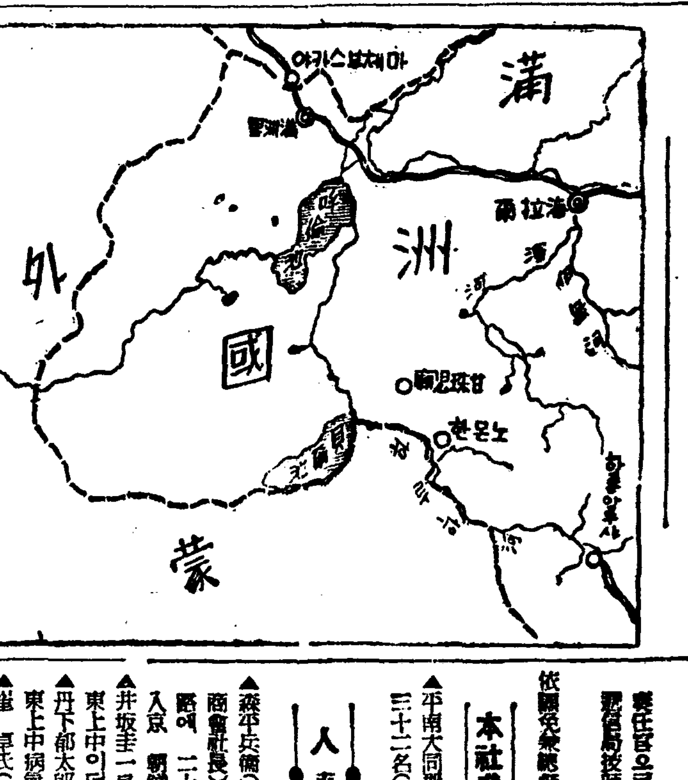
等으로서 그骨子를 빼어버린모양이다 結局은 다시 聯盟加入國에對하여 個別的으로 對支援助를勸告하기로된模樣이다 그리고理事會는 二十四日午後公開會議에서 右對支援助決議案을 採擇할터이다

日本이企圖하는 即戰即決은失敗 王寵惠의斯瞞的放送

【香港二十四日發同盟】外交部長 王寵惠는 二十三日 重慶으로부터 米國에 對하여 『中國抗戰前途의 靑港』이라稱하고 米國의 同情을얻고저 如左한 談話를發表하엿다

日本이 企圖하는 即戰即決計劃은 이미 失敗에도라가고 支那는 마츰내勝利에 가까워지고잇다 日本은 兵力을消耗하고 財力을 蕩盡한지 이미二十二個月에 亘하여 占領地區는各地에 分散하여 大海中의小群島와가티 이를持久하기가 困難하다 我國內의 長期建設은 前途에 光明이 잇고 極東에 利害를 가진 各國은 時機를 놓치지 말고 早晩 부러라도 늦지 안코 미리 支那援助를 增加하여 日本에 對한 一切의 武器供給을 斷絶하여야 된다

「노몬한」事件眞相
蘇內外不利情勢隱蔽策



005083

【新京二十四日發同盟】外蒙古軍은 最近滿蒙國境의 노몬한 附近에서 盛히 挑戰的 不法行爲를거듭하여 五月中旬頃부터 機械化部隊를 大스크廟前面에 動員하고 그 空軍으로써 滿洲國 領土를 侵犯하며 또 騎兵部隊로하여금 하루하河를 넘어 越境시켜 日滿軍을攻擊하는等 의暴擧를 敢行하여 日滿國境防衛軍에게 그때마다 反擊되고 또空軍七機를 擊墜當하여 外蒙古軍의 無能을 暴露하게 되엇는데 右外蒙軍의 이러케 執拗한 挑戰行爲의 直接動機로 보이는것은 獨伊軍事同盟締結에對한 日滿兩國의 絶對的支持에 對한 蘇聯側의 反擊行爲로 보힐뿐아니라 또 一面蘇聯은 獨伊防衛陣結成의 唱導國인 英佛兩國과 이에關한 意見을달리하여 英國과의 사이에 物議가 생기어 外交的 離隔에 逢着하고 歐洲民主主義國家와 絶緣孤立狀態로되어 리드뷔노프外相의 失脚에 까지 進展하고對內的으로 非常한 影響을 주게 되엇스므로 이對內外的 政治狀勢를 隱蔽하여 國內政情의 不人氣를 好轉시키려는 魂膽에不過하는것으로 觀察되는데 이에對하여 我日滿軍은 不脅威不侵略의 原則에 依하여 國境防衛에 萬全을 期하고잇다

大陸과鼓浪嶼間 장크航行嚴禁

【厦門二十四日發同盟】大陸과鼓浪嶼間의 장크船의 海上貿易은 從來盛히 行하고 잇스며 이장크船이 抗日分子의 鼓浪嶼潛入에 利便을 供與하고잇스므로 我當局에서는 對策을協議한結果 沿岸交通遮斷을强化하기로되어 明二十五日 午後六時以後 比種장크船航行을一切嚴禁하고 違反者에對하여는 斷乎 處分하기로 되엇다 即 內田總領事는 二十四日 公文으로써 各國領事와 工部局에對하여 此旨를通告하엿다 이로써 鼓浪嶼에의 物資搬入은 相當히打擊을 바들것으로보인다

進級의 恩命 濱津大佐以下兩氏

【東京電話同盟】去二月一日 中支戰線 沙陽鎭附近에서 名譽의 戰死를 遂한 濱津大佐、藤田少佐、高橋次郞准尉는 二月一日附로써 各其 進級의 恩命에 浴하여 五月二十三日附 官報로써 左와如히 發表되엿다

陸軍航空兵大佐 從五位勳三等 濱津藤太郎 任陸軍少將

陸軍步兵少佐 從六位勳四等功四級 藤田 進 任陸軍航空兵中佐

陸軍航空兵准尉 高橋寅次郎 任陸軍航空兵少尉

物動計畫可決
十四年度 閣議서決定後即時實行

【東京電話同盟】昭和十四年度物資動員計畫에 對하여는 過般來企畫院이 中心이되어 陸海軍、商工、大藏等 關係各省間에 鋭意折衝中이던바 最近 비로소 計數整理를終了 成案을 어덧스므로 企畫院에서는 二十四日午後臨時參與會議를 開催審議한結果 右物動計畫案을 可決하엿다 따라서 政府는 即時 來二十六日 定例閣議에附議 이를 靑木企畫院總裁로부터 詳細說明한後 正式으로 決定하고 即時 實施에 着手키로되엇다 그리고 政府는 右物動計畫의 重要性에 비추어 閣議決定과 同時에 同計畫의 槪要及 그目標를 指示하는 重要發表를하고 그實施에 伴하여 逐次 實行케될 總動員法의 發動 勞務調整의 徹底 切符制度의 採用等 數項에亘한 重要政策을 揭揚하여 衷心으로부터의 國民의 協力을 求하기로되엇다

總務部長會議 第二日

【東京電話同盟】全國總務部長會議 第二日은 二十四日午前八時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 平沼首相 荒木文相 館內務次官 橫溝內閣情報部長以下 各省關係官 全國各府縣 總務部長이 出席하여 먼저 荒木文相으로부터 國民精神總動員運動 新展開의 方策에 關하여 『精神運動에 對하여는 批判하는말도드르나 모두 다른사람일까지 생각하는것은 實로遺憾이다 今日一般國民은 精動의 趣旨를 理解하고 實踐에當하고잇는데反하여 一部智識階級及指導者階級이 도로혀 第三者의態度로 이를對하는感이잇다 이點은特히 注意함을要한다 따라서地方廳에 잇서서는 今後中央의 指令을 기다리지말고 地方情勢에 應하여 獨自의運動을 積極的으로展開하기를바란다』고訓示를하고 橫溝情報部長으로부터 精動運動의 新展開에 對하여 說明을하고 最後로 平沼首相으로부터 精動運動의 緊要한 所以를말하여 實績을擧하도록 更一層의努力을 要望하는旨 訓示가 잇서同十一時四十分에 散會하엿다

首相外務次官을招致 經過說明을聽取

【東京電話同盟】平沼首相은 二十四日午前十一時 首相官邸로 澤田外務次官을 招致하고 鼓浪嶼問題에關한 其後의 經過에對하여 說明을 聽取하엿다 그리고 次官은 太田書記官長과도 約三十分間會見하고 辭去하엿다

佛國의援蔣露骨化
軍事顧問卅名中六名은重慶着
我當局對佛嚴重抗議乎

【東京電話同盟】佛蘭西政府는 對蔣援助를 露骨化하여 過日英米와 共同步調를 取하여 陸戰隊를 不當하게도 上陸시켯는데 佛國의 對蔣援助를 暴露하는 다음과가튼 情報가 二十四日 確實한側에 到着하엿다 即佛國은 對蔣軍事顧問三十名을 派遣하기로 決定하고 그先發隊六名은 去十六日 前後 베르지니空軍少將에 引率되어 重慶에 到着하엿는데 右情報에 關하여 我當局에서는 佛國政府의 軍事的 對蔣援助의 새로운 表現으로서 重視하고 近近 佛國政府에 對하여 抗議를提出하여 反省을求할것으로 보인다

朝鮮經濟와 三角關係 ❶
農村의奸商跳梁 經警의强化必要

金明植

日支事變以後에 一般物價가 한갓 騰貴의一路로 移行해온것은 隱蔽할수업는 事實이어니와 그것이 最近에이르러서 「騰貴騰」하여 그間의 여러가지의 物價抑制政策이 모두 아모러한效果를 나타내지못한것은 事實로써 立證하고 잇는것은 特히 注意할바이다 그리고 그러한中에도 朝鮮의物價는 더만히 오르고잇스니 朝鮮經濟의 特殊性抹消云云이 問題되고잇는 이때에잇서서 이것은 또하나 조호特殊性의表徵이 아니라할까 그리하야 投機業者가 跳梁하고 뿌로카가跋扈하고 買占、賣惜、闇取引 又는 闇市勢 不法賣買等이 隱然公然히 擴大되고잇스나 이것은 經濟警察의 無能을 如實히說明하는것이아니면 아니된다 去五月二日 地方長官會議席上에서 鹽野法相은 『事變下의 思想情勢로말하면 愛國心의 昂揚으로 말미아마 矯激分子의活動이 자이形跡을 감추엇스나 今次事變의 進展에依하여 漸次實施된 經濟統制는 그實施에잇서서 國民의協力과 自肅自戒에 막길수바게업는바 今日의 緊張된 經濟狀態下에 이미違反行爲가 相當히만군 그手段이 漸次 巧妙惡辣하야 公定價格을 超過하게 販賣하는等 所謂秘密取引이 盛行하야 法을無視하고 또 거등違反을 敢行하는者가 적지아니하니 國民의自肅心에만 依賴할수업는 形便이라』고 하엿고 또 그後 經濟警察官會議를開催하여 經濟取締합을 決議하엿다고傳한다 元來 經濟警察이 思想警察보다 十倍나 어려운것은 贅言할必要도업는 일이어니와 鹽野法相의말과가티 이제 『矯激分子』가 形跡을 감추은것은 警察의威力과 權能으로 말미암은것이아니오 國際又는國內情勢가 國民을精神的으로 總動員하여 愛國心을昂揚케한 때문이다 그러므로 惡辣한手段으로 隱然公然히 行되는 經濟的違法行爲로 말할지라도 그의根本이除去되지안는 限에는 警察手段으로써 能히그를防止할수업는것은 알기쉬운일이다 그리고 이제 朝鮮農村에 잇서서 肥料取引의 實際事情을 살펴볼것가트면 그의一般을 엿볼수잇다 『今年度朝鮮의肥料는 輸入制限과 內地로부터 供給바들 豫定이던肥料가 北陸地方의 增産計劃으로 말미아마 그곳으로 쏠려바린것과 運送關係로 結局豫定의十分之二밧게 들어오지안케되어 肥料不足을느끼고 肥料價가 더욱이어서 오를徵兆가보이게되엇다 이것을막기爲하여 지난五月一日에 總督府에서 肥料販賣價格取締規則에依한 公定價格을 制定하고 이價格을無視하는 秘密取引을 嚴重히警戒하고잇스나 農村의實情을 살펴보면 이公定價格이라는것은 都賣와小賣商間의取引에밧게 效果를나타내지안코 小賣商人에게서 一般消費者에게로 넘어갈때에는 肥料가 直接高利貸로 換算되어버린다 即 公定價格의 四圓八十錢이라하면 [illegible] 三割의利子를 加算하여 六圓三十錢으로換算한 借用契約書를 作成하고 十月秋收期에 報償하도록 되어버림으로 農村은 疲弊의길로 점점 빠저들어가는 狀態에잇스니 이것을 防止하자면 地方經濟警察의 取締强化와 低利農資의 大量流入이 切實히 要望되고잇다』는 報道가잇다

그런데 이제 朝鮮의 農村에 잇서서는 資本이不足한 까닭이아니요 一般的으로 細農 即 自作農및 小作農等의細農에게 資本이업는 때문이어니와 이제 總督府의 七億圓에가까운 今年度豫算과 二億圓의 事業資金과 朝鮮銀行의 保證準備擴張 六千萬圓等은 그만두고라도 殖産銀行의 三千萬圓增資에 依하여 增加된 四億五千萬圓의 大部分은(殖銀은 資本金十五倍까지 債券을發行하는 特權이잇스므로 三千萬圓의 增資에 依한 四億五千萬圓의 債券을 發行할수잇다) 農村으로 流入될것은 말할必要도업다 最近 殖産銀行의 貸出狀況을 몰것가트면 商業資金二億七千萬餘圓 公益産業貸出一億三千萬圓 産業貸出一億萬餘圓의 合計五億八千萬圓으로서 貸出의 飛躍的增加를 示하고잇는데 그것은 아모르 더욱增加하게될 여러가지 理由가잇다 그리하야 그間 金融組合에서도 金利를 引下하고 每個人에對한 貸出限度를 前보다 倍以上이나 擴大한것은 農村에 對한 農業資本의 大擴流通을 꾀치아니한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도 擔保物이업는 一般細農의 手中으로 들어갈만한 道理가 업고 [illegible] 만 助長케되고 그뿐만아니라 그와가티 金融이 膨脹하여 物價가 더욱 騰貴케되니 細農의 經濟生活은 一層窮迫하는것을 이저서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이제 農村에 잇서서 奸商및 高利貸金業者들의 跳梁을 抑壓하고 細農의經濟生活에 侵入하는 여러가지의 不正行爲를 除去함에는 오직經濟警察에 依賴하는것밧게 다른道理가 업는데 그러나 그를 如何히 强化한다 할지라도 特別한 效果를 約束할수업는것은 말할 必要도업다 그리고 朝鮮에 配定된 肥料의 豫定數量에서 그大部分이 北陸地方으로 옴겨가게된것은 事實이요 또 그로말미아마 奸商輩가 跳梁하는것도 必然한일이니 이러한 現實에 잇서서 저들의 違法行爲를 一片의 取締法規로써 阻止할바 아닌것은 누구나 生覺할수잇는 일이다 그러므로 問題는 必要商品의 數量配定에잇거니와 이제 그와가티 配定된 數量에서도 그大部分이 옴겨가게되엇슴에 不拘하고 이에 對한 對策을 미리 講究해두지못한것은 一大遺憾이 아니라 할수업다 여기서 日本經濟에 잇서서의 朝鮮의 經濟的 地位와 使命은 一考할 必要가잇다(續)

厦門、鼓浪嶼附近
敵陣을反覆猛爆

【上海二十四日發同盟】艦隊報道部午後四時發表 南支方面戰況

一、數日來厦門附近의 敵據點反復攻擊에從事하고잇던 海軍航空隊主力部隊는 二十一日 二十二日兩日도 亦是厦門及鼓浪嶼附近敵陣地에對하여 猛烈한爆擊을敢行 敵據點部落八個所에 大火災를 이르키어 多大한 戰果를거두엇다

二、他一部隊는 溫州(浙江省)를 空襲 同地製材所及 倉庫群을爆破한後 別動隊는黃華村北方敵陣地及 倉庫數棟을爆碎 이에 大損害를주엇다 地上의反擊이 猛烈하엿스나 我方의被害는업섯다

三、海南島에서 海軍陸戰隊의 一部隊는 二十日及二十一日 王坡附近部落을掃蕩 小銃製作所 二個所를發見 이를破壞 敵을 潰走케하엿다 그리고 二十二日 航空部隊는 昌江及 北黎市를攻擊 軍需施設多數에 猛烈한 火災를이르키게하엿다

英商爭議로因한 日英兩軍對立解決 英陸戰隊撤退承認

【上海二十四日發同盟】黃浦江對岸 工場地帶에잇는 英商綸昌公司의 勞働爭議惡化에따라 二十三日午後 英國陸戰隊 約三十名이 我陸軍警備地域인 同公司工場一帶에 我國의 諒解업시 上陸하엿스므로 我軍은 即時英國側에對하여 抗議를 發하는同時에 二十四日早朝부터 若干의兵力을 同方面에 出動시켜 一時 [illegible] 日英兩軍이 對峙되어 一方 緊張한 空氣를 띠고잇섯스나 日英兩國의 外交折衝도 順調로히 進捗되어 英國陸戰隊도 原則的으로 撤退하기를 承認하엿스므로 同日午後 軍涉外部長宇都宮中佐、警備參謀 矢野少佐는 現場에가서 最後交涉을하기로되어 警備問題는 一旦圓滿解決을 보앗다 右에關하여 中支軍은 如左히發表하엿다

軍事參議官會議

【東京電話同盟】陸軍에서는 二十四日 午前十一時半부터 陸相官邸에 定例軍事參議官會議를開催하엿는바 閑院參謀總長宮殿下 東久邇、朝香 兩參議官宮殿下를奉始하사 寺內 畑 古莊 三軍事參議官 宇佐美侍從武官長 板垣陸相 西尾敎育總監 山脇次官 中島次長 町尻軍務局長 樋口第二部長等이 參集하여 陸相其他로부터 歐洲情勢에 對하여 報告하고 正午散會하엿다

蘇聯最高會議 二十五日開幕

【莫斯科二十四日發同盟】本年度第二回의 蘇聯最高會議는 二十五日부터 莫斯科크레믈린宮에서 開催되어 會議席上人民委員會議長兼外務人民委員은 目下蘇聯과 英佛兩國間에 進行中의 外交交涉에 對한 蘇聯의 態度를 發表하게될것이다 다시 三十九、四十年度의 豫算案의 發表도 하게될것인데 新年度의 蘇聯豫算은 特히 海空軍의 擴張에 重點을 두는 가장 示威的인 軍事豫算이라한다

靑城鎭(山西)占領

【太原二十四日發同盟】山西省東部遼縣附近一帶에 蟠居한 劉伯承의 共産軍第百二十九師를 殲滅코저 攻擊을開始한 我高城目部隊는 二十三日午前十時半 靑城鎭東北方八軒 前口庄에出擊 其一部는 北水峪、水深村附近敵을蹴散하엿다 一方 板津部隊는同日午前六時四十分 靑城鎭南方四軒 桐科村에잇던 數百의敵에逐次 大打擊을주어 正午靑城鎭을占領하엿다

辭令 (二十四日附發令)

朝鮮京畿道公立小學校長 高松 昭道

高等官七等으로 待遇 總督府黃海道安岳郡入城面長 金承鎬

奏任官으로 待遇

遞信局技師兼總督府遞信技師 依願免兼總督府遞信技師 飯田三之助

本社參觀 (二十四日)

平南大同郡 就明學校 六年生 三十二名(引率者 郭宗黎氏)

人事·集會

▲森平兵衛(貴族院議員 大阪丹平商會社長)同夫人 滿支視察歸路에 二十四日午後二時五十分入京 朝鮮호텔投宿 ▲井坂圭一良氏(總督府商工課長) 東上中이던바 三十日歸任豫定 ▲丹下郁太郎氏(總督府資源課長) 東上中病氣療養中이던바快復 ▲崔 卓氏(漣川郡守) 入京人事次 二十四日來社 ▲木下榮氏 ▲曺秉相氏 ▲尹興燮氏 ▲蘇完奎氏同上 ▲李斗用氏 ▲廣瀨德太郎氏 ▲崔白洵氏 ▲李弘鍾氏 李源祥氏 京城府會議員當選人事次廿四日來社

市況 (廿四日)

◆橫濱生絲後引◆ 當限 三九〇〇 先限 三九〇〇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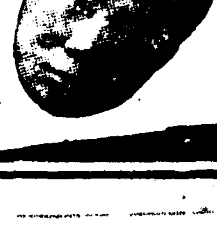
地上十階・地下四階 岩盤上에 巍熱하게 耐震—耐火—耐彈의 新舘은 我社의事業과 함께 確固한것그대로입니다。

「加入者名位로서 參觀希望하시는분은 日曜・土曜・祭日을除하고 午後一時부터 三時까지오십시요。」

東京・日比谷

(保險案內贈呈)

流行歌 國境의 燈불



絶讚! 戀愛와流浪과鄕愁로엮근 蔡君의異彩盤。

蔡奎燁 斷然第一回發賣가二萬枚를突破한 空前의感激盤、이노래를모르고엇지現代人이노라하랴。

태평레코-드

레코-드는 태평時代

大陸經營의 羅針盤

本社主催産業視察團募集에 大陸을아는이들의讚辭

「신동아건설」의새표어미러 천하의 주목은 대륙에로 대륙에로쏠리고잇다 더구나 조선으로서는 지리적으로 접속되어잇는관계상 대륙과의관계는 더욱 깁다 대륙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은 군사상뿐아니고 산업적으로도 중한것이잇다 이런의미에서 본사주최 제오회산업시찰단이 오는六월 경성을출발하야 만주 북지로 떠나게된것은 각방면의 절찬을받고잇다 출발을압두고(단원모집마감은 금이십오일까지)대륙의인식을 기회한 인사들은 본사의 주최에대하여 다음과가튼 치사를보내다

産業朝鮮의 進路는 아무래도大陸이다

京畿道産業課長 李啓漢氏談

바루며칠전에 북지 중지의산업시찰을 하고 돌아왓는데 조선사업인의 금후나아갈 길은 아무리해도 대륙밧게는 업다는것을 절작하엿으로 보앗나서 더욱더절실히 느꼇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위선 자기가 실지로가보고와야 압니다

어떠방면이 유리할까하나고요? 글세요 내가보기에는 면화(棉花)방면이 조선사람에게는 가장유망할듯하든군요 사변만끗나 가라안지면 면화는 무진장으로 모아올수가 잇게될터이고보니 조선서 이것을 가저다가 면사나면포로 만들어가지고 되갓다판다면 상대는중국이니만도는그지업다고할것입니다

그리고 피혁(皮革)도 거기에는 얼마든지잇스니 이것도 드려다가 정제해서 되파는피혁공업도 생각할만하구요, 약재(藥材)가튼것도 교환한다든지하면 이것도소홀히못할조흥사업이 되리라고 밋습니다 문제는 역시기술과 자본인데 그저빈주먹으로 돈버리가조타고 밀려가는사람도 만흔모양이나 이래서는 도리어 해독

大陸雄飛엔 無二의嚮導

實業家 孫錫[illegible]氏談

저번 만주북지시찰에서 저는 어든바가 만습니다 장차우리도 대륙진출을 해야 할터인데 이번 사변으로 그곳의 상황은어떠케 변하엿는가도는 우리선 [illegible] 미에서 이번에귀사에서 주최하는 산업시찰단은 [illegible] 느끼게합니다 조흔일입니다

각자들이 그곳에서 어떠케 지반을닥고 일을해나가는가등을 [illegible]

視察보다도 研究의態度로

京城府尹 高橋敏氏談

소화십일년가을부터 십삼년六월 주경성유훈으로 부임해오기 직전까지 이년동안 주만일본대사관(駐滿日本大使館)내 조선과장(朝鮮課長)겸조선총독부만주국 출장소장으로 재만조선동포를위하여 노력해오던 고교(高橋)경성부윤은 다음과가튼말한다

만주에는 지금백만이넘는 조선동포가 각방면에서 활동하고잇습니다 남(南)총독도 선만일여(鮮滿一如)를 주창하고잇지만 만주와의관계가깁흔 조선인의 만주진출에는 기대되는바가 만습니다 특히 일만지(日滿支)경제『블럭』이 형성된 지금에는 농어방면보다도 상공업방면의진출이 놀라울만치 전개되엇는데

"認識의差異"

個人視察보다有益한機會

實業家 金圭冕氏談

조선과 만주와 북지는 예부터 문화상으로보나 특히 경제적으로보아 인과관계가 기프니므로 나는대륙진출을 극력주장하고잇습니다 그곳에가서 무엇을 해보려면 위선무얼할것인가.자기가 직접가서 눈으로보고 듯고하는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찰을간다고 복잡한 북지가튼곳을 만연히떠나서 가는 오히려안가보니만못한 인식을 어더가지고 오기쉬운것이므로 귀사에서 모집하는 시찰단가튼 기회를 이용하지안코는 시찰다운 시찰을 못할것입니다 내가 가본 경험으로보면 개인으로 가는것과 시찰단의일원으로 가는것이 큰차이가 잇습니다 개인으로 떠나면 첫째 중요기관을 보기어렵고 또 고르게관찰을 하기어려운고로 면밀한인식을 가지고오게 되기쉬운데 단체로가면 보통개인으로는 보기어려운것도 보게되어고루고루관찰을 하게됩니다

學校마다 防空壕두고 防護訓練을 正科로

各道防護課設置와함께研究

사변이후 더욱이 최근국제정세가 긴박하야짐에따라 조선의 방공시설을 완비하는것은 당면의긴급문제로 되어잇스므로 총독부에서는 이에 가주기위하야 근근 각도에 방호과(防護課)를 설치하고저 준비중에 잇거니와 학무국에서는 민중의 방호훈련이 중대함에 비추어 민주방호의 한단위로써 전조선 초등학교이상의 각학교에 방호호(防空壕)등 방호시설을 철저히 설비하는동시에 방호반을 조직하고 방호훈련을 정식학과목에편입하고저 예의연구중이다 즉 지난십팔일부터 이십일까지 동경(東京)에서열린 전국의 학무부장회의에 참석하엿던 총독부학무국 중도(中島)교학관은 그동안 내지각소학교안에 방공구등 여러가지 방공시설이 정비되어잇는것과 각학교마다 방호반을 조직하야 맹렬한 훈련을하고잇는상황을 자세히 시찰하고 도라왓는데 조선은 내지보다 그지리적관계등 여러가지점으로 방공의필요가 더욱절실한터이므로 금후내지와가티 학교내의 방공시설을 확충하는동시에 전조선각학교에 방호반을 조직하고 방공훈련도 아주정과목에너허서 훈련을 시키자는것이다 [illegible]독하다고한다

新府議任氏召喚

運動員의選擧違反嫌疑擴大로 東署、深夜까지取調

경성부의선거전의 종막인투표직전부터 입후보자임흥순(任興淳)씨의운동원수명을 매표되어올는의 선거위반혐의로 취조중이던 동대문서에서는 개표가끗난후 부터 다시 맹렬한 활동을개시하더니 드디어 이십사일당선된본인을 불러다가 밤이 늦도록 취조중이다 임씨는 이번선거에 오백네표라는최고점으로 당선된이다 (사진은 임흥순씨)

飮毒自殺企圖

【寧越】영월군남면 연당리팔룡 [illegible]히(郭弄[illegible])(一八)는화류계로칠팔년간이남자 저남자와 사랑을속삭이고잇섯는데 근일에 자기친가에와잇다가 부모에게꾸지람을듯고자연이 비관한마음이생겨 이세상을 비관하고 지난이십일일오후두시쯤 약잿물을먹고신음중이라고한다

下女死體를暗葬

【盈德】경북영덕군영해면 괴시동(盈德郡寧海面槐市洞)권영우(權永宇)는 지는이십일부터 영해경찰서에서 엄중박수한 취조중이라는바 그내용을 탐문한바에의하면권영우는 전주소출본군병곡면 아곡동(柄谷面牙谷洞)에두김순이(金順伊)(二〇)를 수년전에 자기집 하녀로 두엇던바 불행이 병이들어 작년십이월말에사망하자 호적도어업고 기타수속과 또한매장비 관계등 편이롭취하야 그부근산지에 암장(暗葬)하엿던바 요사이 그시체가 노출되어 개가다리를 물고다닌사실이 당지경찰에 탐지되엇다고한다

海軍記念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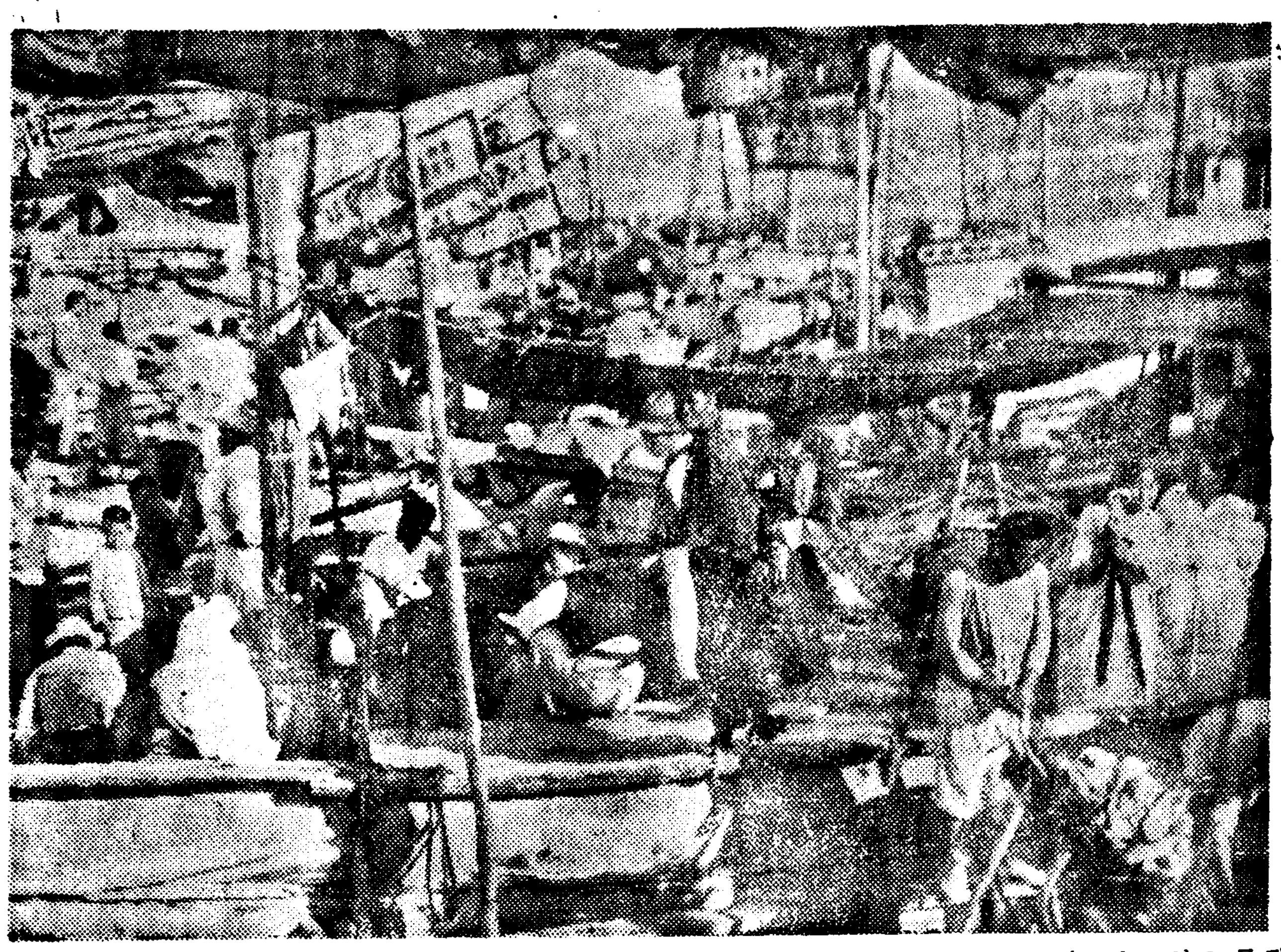
前後一週間各種行事

오는이십칠일 제삼십사회해군기념일을마지함에당하여 경성부에서는 제국해군의 혁혁한위업을 추억하며 동아신질서건설을위하여 더욱더욱 국민정신을 작흥하는동시에 해군과 바다에관한 인식을 기피하고저 당일을중심으로 전후일주일동안 각종기념행사를하기로되엇는데 특히기념일에는 일반부민은 국기를게양하고 아침여덟시부터 조선신궁압뜰에서 집행하는 기념식전에참렬할것과 오정에는 『사이렌』이엇나자 일분간 위령묵도를올리기로되엇다

坑夫二名生埋

一名은卽死

【新義州】평북의주군고령삭면구창동(義州郡古寧朔面九倉洞)의주망산제삼구광업소의 광부 최학룡(崔鶴龍)(二[illegible])과 최영수(崔永秀)(二[illegible])의두명은 지난이십일 오전두시경 갱내폭파작업후에 갱내에들어가 광석을운반하려다가 불연듯낙반(落盤)이되여 두명은생매하엿는데 최학룡은즉사하고 최영수는 생명이위독하다



한물다은생선조기

豊漁歌실코二百餘隻麻浦에

조기때를 마지한 마포(麻浦)에는 이십삼일 저녁때부터 이십사일아침까지에 조기배가 이백여척이나 들어다 기뭇을 가뜩가뜩실은 조기서 때마추어 시장을이루고 잇다 종래만흔때라야 백여척씩 몰려들던 마포에 이백여척이나 몰려들기는 수십년래 처음일이다 이러케 배가 만히 몰려들게된것은 조기고장 연평(延坪)바다에서 이번사리통에 만히잡힌까닭이다 갑슨 백마리를 한뭇에 묵근게 사원으로부터 오원까지이니 비싸지안흔편이다 (사진은 어제저역 마포에서)

오토빠이行悖

남의商店에突入

이십사일 오후다섯시삼십오분쯤 부내북아현정(北阿峴町)구십번지에서 대현정(大峴町)으로부터 죽첨정(竹添町)방면을 질주하던 부내숭인정(崇仁町)일백삼십구번지 정경수(鄭慶洙)의 오─토빠이가 동번지 김룡순(金龍淳)상점을 드려바다 유리창과 기둥을 부러트리고 상점안에 안저잇던 김만웅(金滿雄)(八)김종순(金鍾順)(五)두아이를치어 각각 전치일주일씩의 부상을이괴엇다

"書籍配給을 許可制로"……

新聞雜誌用紙는減少안는다

古川圖書課長 歸任談

용지협정과 서적배급회사창립문제와 기타여러기지용무로 지난 팔일 동경에출장중이던 총독부 고천(古川)도서과장은 이십사일오후 한시삼십분 경성역착『아까쓰기』로 귀임하야 다음과가티 이야기하엿다

용지문제는 아직 그 표준정도를 결정하지 못하엿스나 시국기라 여러가지 관게로 보아 신문잡지등을 이용할 필요가 점차긴요중대하여오는 실정이므로 용지를 작년보다 감소시키지는안홀방침이다 그러나 배정의 균형을취하기 위하여 현재의 사용량에 다소 이동이 잇슬것은 면치 못할 사정이다 다시 말하면 종래 만히 배정되던곳이 금후적게될수 가잇고 종래적게배정되던곳이 금후만케배정될수도 잇슬것이다 생산량으로보면현재 중지, 북지에 매년 약사십오만련의 신문용지를 수출하고잇는만치 조선의 현상유지는 아무걱정이 업다 영화령(映畫令)은 발표준비중으로 오는시월중에발표할예정이다 서적배급회사는 일부판매업자가 반대를하고 잇스나 그것은 그들의오해이므로 그다지문제되지안는다 대개매년 내지로부터 이입되는 잡지기타 서적이 약오백만원어치에 달하므로 현재와가튼 소위외지정가(外地定價)를 그대로 묵인할수업슬뿐만아니라 출판통제관계로서도 이회사는벌써 필요한기관이다 종래소매업자의 기득권은 절대로 무시하지안흘 방침이며 그들의영업상 리익도 고려하야 판게방면의 출자로서 약백만원의 회사를창립하기로 결성하고 방금 준비중인데 이회사가 창립된뒤에는 서적배급업자들을 허가제도하게될것이다

판청공인(公印)을 위조해가지고 협잡하다 철창에─
그래서 판청의 공밥을 먹게 됏스니 이만하면 소원성취。
의무교육제도, 십년후부터 실시한다고 당국이 회언。
한무국장, 성씨가명원(鹽原)이라, 종잡한공덕을 언덕처럼 쌓은모양。
실연하대학생 사람도 풀길작정이엇스면 실연이당연。

深夜의速力取締

八自動車部摘發處罰

속력제한을 무시하고 다라나기를 잘하는밤거리의택시─가 속력위반으로 경찰에 걸리엇다 종로서에서는 이십사일 오전두시 종로네거리를 중심으로 택시─속력취체를하엿는데 조선(朝鮮)、부도(敷島)、일광(日光)、경성(京城)、동래(東萊)、경일(京一)、신정(新町)등 각차부택시여덟을적발하고 이십사일 각각속력과로 과료에처하엿다

志願兵一行 大阪을視察

【大阪電話】[同盟] 어친열(御親閱)을 배수(拜受)한 광영에 빗나는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생도 일백구십구명은 해전(海田)대좌이하 인솔아래 조선에 돌아오는도중 이십삼일오후 차로 대판역에 도착하여 곳시역소를 방문하고 사교전기과학관(四橋電氣科學館)에서 『플라네타리움』(太陽系儀)을 견학한후 일본관(日本館)에 투숙하엿다 이십오일은 시내를견학하고 오후세시반 사궁(四宮)역발차로 떠날예정이다

青年縊首自殺

【順川】평남순천읍내서면리(順川邑內西面里)한두삼(韓斗三)(二[illegible])이라는청년은 지난이십일일오후세시반쯤 동읍내동명관(東明館)뒤 서금산에서 소나무가지에 목을매어자살을 하엿는데 이보고를받은 순천서사법계 연상(淵上)부장이현장에 가서조사하엿스나 원인은 유서가 업스므로자세한내막은 알수업스나 불구자 세상을비관하고 자살한듯 하다고 한다 한두삼은어려서 불에걸려발도잘못 쓰는 불구자이엇다고한다

曆

▲五月二十五日(木曜) 陰四月七日 ▲干支壬戌 ▲日出午前五時十八分 ▲日入午後七時四十三分 ▲日南中午後零時三十分 ▲晝間十四時二十五分 ▲月出午前十一時二十八分 ▲月入午前零時四分 ▲滿潮(仁川)午前九時四十五分 午後十時十分

高工、鑛專無勝負

高專蹴球聯盟戰第四日

今日은京城運動場에서擧行

朝鮮學生蹴球聯盟主催의 第三回 大學、高專蹴球리─그戰 第四日의 京城高等工業對京城鑛山專門의 一戰은 二十四日 午後五時五分부터 大學球場에서 擧行되엿바 別項戰績과가티 一對一同點의 無勝負로 마치엇다

鑛專 1 【前1…1】【0…0】 高工 1

第三部戰…高工對鑛專戰은 同午後五時五分부터 朴殷[illegible](主)高珍善 李敏禹(線)三氏審判下에 高工先蹴으로 開始되바 前半戰四分에 鑛專一點을 先取하엿스나 이에 高工소금도 屈치안코 二十八分에 一點을 恢復하고 後半戰에드러가 兩軍得點에 全力을 다하엿스나 뜻을이루지 못한채 一對一同點의 無勝負로 마치엇다 그리고 今二十五日에는 第二部의 高商對醫專戰과 第一部의 普專對世專戰이 午後五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릴터이다

	【鑛專】	【高工】
GK	高大玉	金東旦
FB	[illegible]	[illegible]
HB	[illegible]	[illegible]
FW	[illegible]	[illegible]

鐵道、專賣各勝

實業庭球第十日

京城實業庭球리─그第十日은 兩코─트에서 行한바 鐵道와 專賣가各各이겻다

【專賣】勝

(相[illegible] 金[illegible]) 4…0 (朴貫世)		
(大川 洪性[illegible]) 4…3 (尹[illegible])		
(白[illegible] 李[illegible]) 4…2 (朴用[illegible])		
(洪[illegible] 李[illegible]) 2…4 (李正[illegible])		
(張[illegible] 梁[illegible]) 0…4 (金[illegible])		

(第二라운드) (宮川 金[illegible]) 1…4 (李[illegible] 李正玉)
(大川 洪性[illegible]) 0…4 (金[illegible] 房[illegible])
(第三라운드) (白[illegible] 李[illegible]) 4…3 (李[illegible] 李正玉)
(第四라운드) (白[illegible] 李[illegible]) 3…4 (金[illegible] 房[illegible])

【鐵道】勝 【殖銀】

(楠原) 0…4 (李[illegible] 黃[illegible])
(崔[illegible] 大西) 2…4 (杉下)
(李相[illegible] 大[illegible]) 0 4 (任宗淳 鄭斗和)
(金甲[illegible] 浦木) 1…4 (井下 近[illegible])
(崔榮泰 朴龍[illegible]) 2…4 (黃川秀 渡[illegible])

府廳3A 遞信2

京城實業野球리─그戰…遞信對府廳의決勝戰은 二十四日午後四時三十分부터 京城球場에서 遞信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三A對二로 府廳이 이겻다

遞 1 0 0 0 0 0 0 1 0
府 0 2 0 0 0 0 0 0 1A 3A…2

培材첫對戰에 協實과東星擊退

今日은徽新코─트서

京城私立中等學校庭球聯盟主催의 中等學校庭球리─그戰 第四日의 培材對協實、東星對培材戰은 二十四日午後四時二十分부터 蓬萊町 徽文中學코─트에서 擧行하엿는데 이날 普成이 出戰할 豫定이엇스나 事情에 依하야 出戰치못하야 前記와 가튼 세게임을 行한바 그 戰績은 다음과가티 培材가 協實과 東星을 모두물리치고 東星은 協實을 各各이겻다 그리고 今二十五日午後四時에는 徽新코─트에서 徽文中學對東星商業을 擧行하기로 되엇다 (當日審判…金潤昌、梁柱華(主審)金在應、李相熙、鄭雨瑞(副審)李祖榮、洪得村(線審))

【培材】勝9…5【協實】
○(閔丙琪 柳寶錫)4…2(朴[illegible] 李鍾完)×
×(吳昌根 張錫元)1…4(李[illegible] 朴[illegible])○
○(金鼎洙 田裕鎬)4…2(南[illegible] 金在[illegible])×

【培材】勝8…5【東星】
○(閔丙琪 柳寶錫)4…0(尹正[illegible] 裵[illegible])×
×(張錫元 吳昌根)0…4(李[illegible] 朴[illegible]來)○
○(金鼎洙 田裕鎬)4…1(李[illegible] 李相[illegible])×

【東星】勝11…7【協實】
○(李[illegible] 朴[illegible]來)4…3(南[illegible] 金在[illegible])×
○(李[illegible] 李相[illegible])4…0(許[illegible] 李鍾完)×
×(尹正[illegible] 裵[illegible])3…4(李[illegible] 朴弘[illegible])○

比島拳鬪軍 陣勢打診❶

오는廿八日에 京城運動場 庭球코─트에서 열리는 日比對抗拳鬪選手權大會에 出場코저 멀리南海의섬나라 比律賓으로부터 來訪한 拳鬪選拔軍은既報와가티 昨二十四日에 入京하야 待機中에잇는데 이들의 陣容을 紹介하야써 滿都팬의參考에바치려한다

▲監督 루이스·아·푸리나리오氏는 比島體協의 拳鬪部技指導員이며 土木技師요 리잘體育館에 從事하고잇는데 今年三十八歲이다

▲코─취 써레스티─노·엔리퀴─즈…氏는 極東大學體育部助手로 일찌기 全比島미들級의選手이엇스며 二十八歲인데 拳鬪코─취로 第一線에서 活躍하고잇다한다

▲리─스·델·로사리오(프라이級)君은 十九歲로서 極東大學豫科二年生이며 全比島選手權을獲得한 新進이다 接近戰을特技로하며 스트레─트와 쨉에 妙味가잇고 마닐리에서 金仁泰君을 이긴猛將이라 이번金仁泰君의 雪辱戰을兼한 東洋프라이級 選手權爭奪戰에 興味를이끌게한다 (續)

今日運動

▲蹴球=朝鮮學生蹴球聯盟 主催 第三回 大學、高專蹴球리─그 第五日 京城醫專對 京城高商 (午後五時) 普成專門對世專 (午後六時廿分) 京城運動場(觀覽料一般二十錢 學生十錢)

▲庭球=京城實業庭球리─그第十一日 商銀對遞信(朝銀코─트) 東拓對府廳(殖銀코─트)午後四時五十分(觀覽無料) ◇私立中等學校 庭球리─그第五日 東星對徽文 午後四時 徽新코─트(觀覽無料)

▲野球=大學、高專野球一、會第五日 平壤醫專對大學豫科 午後四時半 京城球場(觀覽無料)

▲軟式野球=京城銀行團軟式野球聯盟主催 春期리─그 第一日 朝信對金聯 午後五時 殖忠壇球場(觀覽無料)

▲籠球=朝鮮學生籠球聯盟主催春期리─그 第一日 大學對藥專 (午後四時半) 法專對世專 (午後五時半) 東崇町 大學코─트 (雨天時에는 淸涼里大學室內코─트)(觀覽無料)

今日天氣 晴一時曇

中央公論 六月特大號

政局明暗座談會 (せいきょくめいあんざだんかい)
(出席者) 木原通雄 津久井龍雄 有竹修二 濱田尚友 四方田義茂

蔣介石の七月攻勢・田中香苗
新南群島の意義・藤井聖政
リトヴィノフ失脚と外交・市倉和朗
世界軍擴行進曲・伊藤正徳
低物價政策と財界・野崎龍七
經濟巻談・草田時雄

新ヒューマニズム創造・船山信一
學問的方法論・西田幾多郎
「物價統制大綱」批判・田邊忠男
低物價政策の檢討・友岡久雄
歐洲危機の分析・堀眞琴

特價 壹圓廿錢
三色口繪 上村松園
國民の聲

新時局讀本 インフレとは何か・木村禧八郎
官僚を批判す・津久井龍雄
髙橋是清傳・土屋喬雄
その頃の學習院・有馬頼寧

日本語の問題・髙倉テル
「雪」の映畫を作る話・中谷宇吉郎
或る兵士の戰線報告・岡村津三郎
北洋漁場出漁記・渡部欽一郎

淺草觀音堂 小村雪岱
復活双葉山と夏場所 彦山光三
公論月評 科學、政界、論壇、文藝、運動、映畫
三河島長屋日記 サトウ・ハチロー
御難様文 借家難・新居格 女中難・圓地文子 煙草難・小熊秀雄

戰時農村生活報告書・齋居大三
成長する日本映畫・上野耕三
詩人賞禍を嗤ふ・金子光晴
我が政黨論・三土忠造
批評の精神を論ず・中野好夫
源氏物語の女性・片岡良一
早大野球監督手記・田中勝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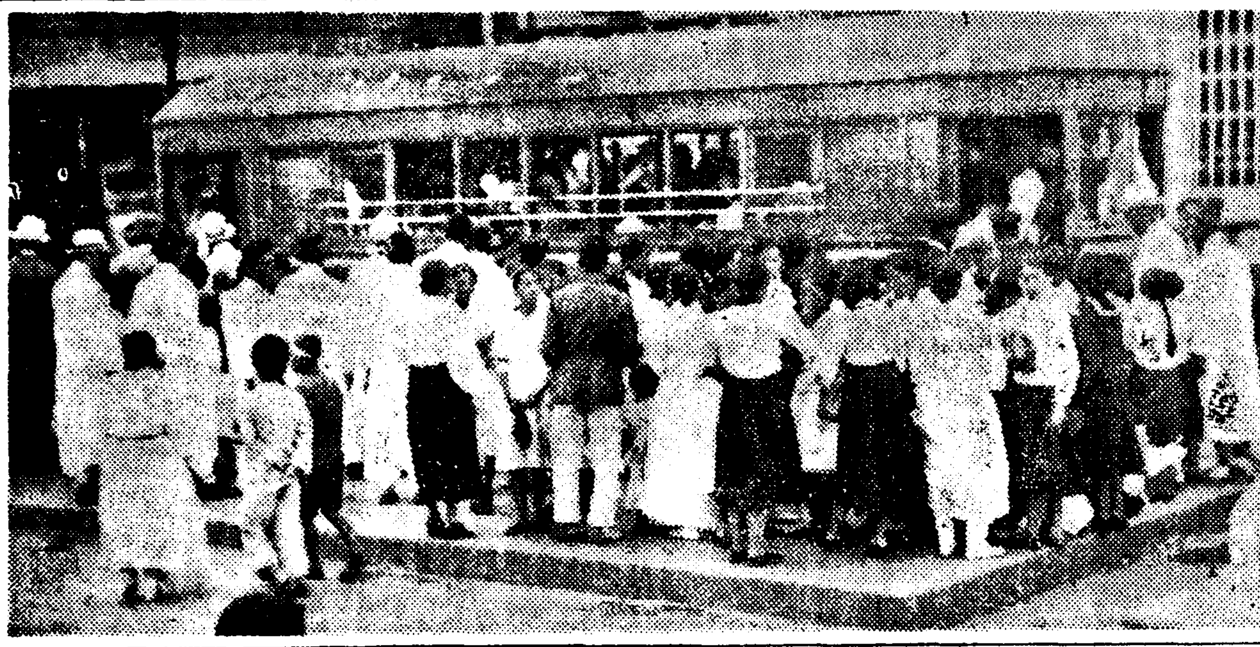
內亂ルポルタージュ(五十枚) スペインの悲劇 アンドレ・マルロウ
ゴルフ隨筆・正宗白鳥
花袋の名作「蒲團」のモデルを繞る秘翰發表
ミレル將軍失踪事件
小勝身の上噺

【詩】東京だより 上海だより 北京だより 草野心平
旅は道づれ(木村義雄 佐藤垢石)
時局放談・橋本欣五郎
新らしき日本への抱負・土肥原賢二
青葉の雨(六月隨筆)・森田たま
忠臣藏史話・矢田挿雲
海南島記(繪と文)吉田謙吉
博鰲港敵前上陸記・逗子八郎
街の人物評論 頼母木桂吉●上田廣●内田吐夢●大島浩
【俳句】或る演奏……山口誓子
(小說) 野戰病院・日比野士朗 森林の結婚・寺崎浩 父の生涯・加能作次郎
【短歌】昡抄……吉井勇
巴里特稿 渦中から歐洲危機を打診する・淡徳三郎

中部版

薄待밧는西部京城
人口는逐日激增！
諸般施設은古色만蒼然
電車通行은冒險中에大冒險

북과 상사년동안에 괄목상대할만큼 발전되고잇는 서부경성 일대에는 인구와주택 상절등이 늘으물때러 전차 전등 공공시설이 모든시설도 완비되어야 할것이나 이를 문화시설은 사오년전의 옛모습을 약간버서난것외에아모런 발전도업스며 그중에도 전차의부족은 날마다 문안으로 드나드는 수만명주민에게 큰불편을 주고잇다 그리하야 금년일월십팔일에 아현정(阿峴町)공덕정(孔德町)신공덕정(新孔德町)마포정(麻浦町)등의 대표가 경전(京電)당국을 방문하고 전차대수증가와 구역철폐등에 대하여진정하엿든일이 잇섯는데 그때경전에서는 여러가지로 잘생각하여선처하겟다고 언명하는동시에 전차만은 사월부터 서대문마포사이에 아침출근시간과 저녁퇴근시간에 대형전차를 운전하겟다고확실히 언명한바가 잇섯다 그러나 사월이지나고 오월도아프로며칠 남지안흔지금까지 전차의대수는 늘지안코 그동안북아현정과 공덕정의 신주택지에 이사하여온 사람의수는 금년다섯달동안에 약오천여명으로 교통량이 대폭으로 증가되고보니 전차의 부족은 그절정에 달하엿다 아침과저녁으로 전차정유장은 안전지대에 꽉차고도넘어 길거리우에 그대로서게되어 지나가는 자동차도 위험하려니와 오분씩이나 기다려서 겨우오는 전차는 만원이라는 표를단채로 서너대씩이나 지나가 출근시간에지장이 여간만치안흘뿐 아니라전차를 타는것은 모험중에도 큰모험이어서 서부일대의주민은 경전이 언명한대로 큰전차를 어서운전해 주기만바라고잇다 안일그때의 언명을 실행치안는다면 다시 각정대표자 회의를열고 모든대책을 강구하여서던지 기어히실현시키러는결심이라한다 (사진은안전지대에몰니는승객)



江華各面追加當選

【江華】강화군각면의원선거에 당선된 사람은 이미보도하엿스나 멀리떠러저잇는 서도면은교통관계로 추후에입수된당선자와 오보된사람을다음과가티정정한다

追加當選 ▲江華面 洪在甫 ▲西島面 金相玉 朴斯容 高仁天

訂正 ▲仙源面 ▲佛恩面 ▲吉祥面 ▲河岾面 ▲兩寺面 朴山石 鄭山石 ▲松海面 李大永 李白永

金浦各面協議員

▲金浦面(定員十人) 朴一陽 李赫熙 韓鏞燮 趙敏衛 沈相範 方興先 李炳國 文仙鉉 宋明成 申義均

▲大串面(定員十人) 申大均 權寧植 崔炳國 韓英植 韓應洞 林瑞模 李孝緖 崔德鉉 李鶴洙 金演哲

▲霞城面(定員十人) 洪鎭九 朴濂秉 張鳳澤 金明濟 李鐘協 權政玉 金豐元 閔佑植 閔丙鉉 趙命鎬

▲高村面(定員八人) 康秉薰 金龍長 尹智燮 趙容濬 趙鏞斗 金振煥 奇燦度 金南圭

▲黔丹面(定員十人) 李貞夏 金思鉉 文享達 申會秀 李秉榮 權利玉 金敬欽 金洛東

▲陽西面(定員八人) 沈瓚澤 朴齊定 金應鎬 崔秉穆 崔昌熙 洪相大 尹炳重 沈鉉五 李承和 柳泰相

▲陽東面(定員十人) 李準夏 朴允永 鄭德煥 趙鎬九 金敬文 金鏞鉉 秋百鳳 李秉昌 金碩演 元容大

▲月串面(定員十人) 李秀福 鄭翼煥 尹光鉉 林奏煥 朴鍾道 趙俊鎬 李卿夏 李周烈 趙翰九 朴久書

▲陽村面(定員十人) 李炳一 金應順 崔瀛燮 閔孝植 李完鎬 沈寬燮 李佳夏 洪重杓 李晩益 韓英植

悲歎하는工都仁川
石炭配給不圓滑
全朝鮮에約廿萬噸不足

【仁川】전시하에잇서서 그공급에 비상한 곤경을 연출하고잇는 석탄(石炭)수급문제에 대하여 인천상공회의소조사과의 조사에의하면 십사년도에 조선내에 수급계획의 대요는 공업용 석탄의부족은 팔할여지가 업거니와 일반민간 수급도 도저히 원활을 도모할수업는 현상이다 조선내의 수급은 최소한도로 이십만돈의부족을 예상하게되어 당국에서도 그완화책을 강구하여 석탄배급통제계획을 세워서 그실행에매진하고잇는일방 석탄연합회(石炭聯合會)를 조직하고 그지배하에서 유연조합(有煙組合)수이입조합(輸移入組合)을 만들어 갱주측(坑主側)과 최린의 원활을도모하고 잇스나 지금상태로보아서는 전년도이상의 할당량은 도저히바랄수가 업는현상이다 그러므로 적기 이십만돈의부족을 예상하게되어 공급원회의나관을 불수업슬것이라하여 일반은비상히 걱정하고잇다 그리고 금년일월부터 사월까지 인천항에 유양된석탄의 수량은 다음과갓다

移入炭	八三、七六八噸
輸入炭	一、七七二
朝鮮炭	二、一一八
合計	八七、六五八

落選議員의運動員
虛無事實을密告
仁川署活動으로誣告임이判明

【仁川】삼십삼명정원에 사십삼명의 입후보를본 인천부회의원 선거전도 지난이십일엽의 선거 투표의결과 열사람이나 떠러저 십삼일에는 낙선된 모의원후보자의운동원이 인천서에 투서를하고 당선한모의원의 운동원이 유권자를다리고 요리집에서 (술을) 먹엿다는 밀고를하엿스므로 인천서에서는 대경실색하여 즉시 모의원에게 조사한결과 전연사실이 업스므로 투서한사람을조사하야 방금엄중한 취조를하고잇다

領井浦棧橋工事 寄附金問題協議
仁川商議役員會에서

【仁川】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오는이십오일오후세시부터 동회의소회의실에서 역원회를열고 동내시에는 의원총회를열기로되엇는데 의안은 오는유월이십일에개최되는 조선상공회의소총회에 제출할 의안의협의와 개성인천「루-트」인 영정포(領井浦)잔교(棧橋)공사기부금에대한 협의가잇스리라한다

黑心의權덕대 金뎅이를窃取

【開城】개풍군남면(南面)우보항(禹寶恒)씨 금광에덕대로잇든권영태(權寧泰)「三二」는 동금광안에서주인의 눈을속여 시까이빼여원에 상당한 "노다지"를 절취해가지고 나와지난이십삼일 개성시내에 잠입하야 일매하려다가경찰에 체포되엇다

防火施設調査 東署管內寺刹에서

동대문서에서는 봉은사(奉恩寺)화재를 거기로 경계를 매우 엄격히 여긴다 해서 경기도에서는 전조선적으로 각사찰에 전갈을띄우고 각사찰의방화시설에 대해서 조사를하기로되엇스므로 관내에 산재한 이십사사찰의 소화용 설치 여부와 방화시설 현내 일일이해서 방화장치가 되어잇느냐 잇더래도 만일의경우에 쓸만하나 어떠냐에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개시하엿다

米一萬石增產目標
三百名地主招請
卅日、開豐郡에서懇談會

【開城】금년 개풍군농회에서는 일만석의 산미를증산시킬 목표를세운바 현재 이가튼실적을보히려면 관내농민들에게 농사개량의 지식을 보급시키는동시에 또한 지주들에게도 도열병구제예방에대한 지식과함께 주의를환기시켜줄필요가잇다 이와가튼 견지에서 오는삼십일일 오후한시부터 동군청회의실에서 부내삼백여명의 지주를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성대히개최하리라한다

實業陸上競技 江原道參加團募集

【春川】제일회전조선실업단대항륙상경기대회(第一回全朝鮮實業團對抗陸上競技大會)는오는 유월십일경성에서 개최될터인데 강원도에서도 다수참가시키기위하야 방금모집중에잇다 현재실업단외에도 체육향상을 도모코자 회사은행원은 참가할수잇다한다 출장규약은 일본육연에 의하야 일인 이종목에 한하야 참가할수잇다하며 경기종목은 다음과갓다 ▲百米▲二百米▲四百米▲千五百米▲五千米▲高障碍▲走高跳▲走幅跳▲棒高跳▲砲丸投▲圓盤投▲槍投

地方人事

▲黃麟大氏(江華産業組合理事)約一週日豫定으로 二十一日 大阪 京都 東京向發

▲張光潭氏▲崔吉九氏▲林華均氏▲安斗鎭氏▲申鳳鉉氏▲宋炳喆氏▲金潤培氏 今般仁川府會議員에當選人事次廿二日本社仁川支局來訪

▲金應泰氏(基督敎朝鮮監理師仁川地方牧師)新任人事次 同上

▲朴璇錫氏(鍾路敎會牧師)利川敎會에轉任人事次本社水原支局來訪

應召軍人에게
辭職을强要
仁川車輛會社에非難

【仁川】일본차량회사(日本車輛會社)인천분공장에서는 그공장에서 재직중인 사원이 응소되자 응소군인에게 사직을강요한 사실을 인천헌병분견대에서 알게되어 인천서와 협력하야 본격적 활동을개시하고잇다 그내용을드른바에의하면 전기회사에서는 전전(前田)과 고전(古田)양사원이 응소되엇스므로 회사일을 지불치못할 형편이니 사표를제출하라고 강청하엿다 그런데 전기 두사람의 가솔은 생활을 유지할수업는데에 전기전전의안해는임신중이므로 동회사의 의뢰로한처사에는일반의 비난이 자자하며 인천헌병대에서는 군수공업으로서 전시하에 큰이익을보는그회사에서 응소군인에게 월급을주지안키위하야 사직을강요한다는것은 그냥둘수업는처사라하야 인천서와헌병대에서는동회사의 간부에게 실정조사를하고잇는데 사실이명백하게될때는 단호한처벌을 나리리라한다

勤勞報國團員慰勞

【楊平】양평경찰서장 성기경(成耆耕)씨는 군내근로보국단을위로하기 위하야 지난십팔일부터삼일간 보국단원이 출동한양평군지제양동(砥堤楊東)이개면공사현장에 출장하야 보국단원을비롯하고 여러가지로 훈시를하엿다

原州와楊平間은
十二月一日頃에開通
京慶線의難工事着着進捗

【楊平】작년부터 공사중인 경경선(京慶線) 양평、원주(楊平原州)간개통은 언제인가하고 세인이 기다리고잇든바 이제그중제일 난공사인 제칠공구(楊平郡砥堤面楊東面)의 공사진행상황을 보건대 그간송본조(松本組)청부로 제칠공구공사구장 고도행일(高島幸一)씨의 감독하에 진행중인데 기리가 일키로나되는 구둔 매월(九屯、梅月)을 비롯하야망미 지산 미봉(望美、峨山、美峰)등 다섯군대굴은 암석이강하야 공사에힘이만이들엇스나 순조로 진행되어 지난십오일에무사히 전부관통되엇스므로 금년십이월일일에는 양평원주간 개통은 무난하리라한다

朴牧師送別會盛況

【水原】지난이십삼일 오후네시반부터 수원종로교회(水原鍾路敎會)에서는 박영석목사(朴璇錫牧師)의 송별회를 교회각기관연합주최로 개최하엿다 남녀의교학생과 유지원과 일반교인 내빈약백여명의 참집하에 성대히 거행되엇는데 동목사는 칠년전에 강원도강릉(江陵)교회에

豆腐工場을團束
먼저衛生施設을調査

두부(豆腐)공장취체 ── 종로서에서는 최근두부를 만드는공장이 각처에생겨서 그수효가못처느럿는데 모두가예날그모양으로 시설이불완전하고 위생적으로전연문제가되지안케 빈약하것만 지금형편으로서 이것을 취체할가가업는까닭에 그냥버려두고잇섯다 그러나요지음 이것을그냥두어서는 대중보건상큰 문제이므로 위생혼수안으로하야 관내의두부집을 일제히조사하고 설비가 비위생적으로된것은 엄중히취체하기로하여 이십사일관내각파출소에 지시를보내엿다

佳麗州商工會創立

【伊川】강원도이천군방장면 가려주시(佳麗州市)에서는 오래동안 문제되어잇든 상공회를 지난이십일 오후한시부터 방장면사무소내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시의장 김익환(金益煥)씨 주재하에 열엇는데 선거된역원은 다음과갓다

▲會長金斗燦 ▲副會長李在秀 ▲理事李在淑 金在坤 ▲監事金昌淳 申達河 ▲工業部長盧龍河 ▲顧問 金益煥 菊池八郎 金潤邦

新昌報國演藝 盛況裡에終幕

【新昌】기보한 신창시사세축하 기념의 보국연예대회는 중앙에서 내여노아도 손색이업느니만치 각배우들의 대열연으로 이틀밤 만원우에 초만원을 이루엇다

金浦 全金浦團體對抗써름大會

時日 五月廿七日
場所 金浦邑內公設運動場
申請場所 朝鮮日報金浦支局
團體 一團體十人組
主催 朝鮮日報支局
後援 金浦青年團

水原郡의十八面
新協議員百八十名

半月面(十人) 朴營鎬 鄭寬鎭 李甲辰 崔酒圭 韓百永 李鎭鎬 鄭在成 崔應用 李炳圭 邢文圭

梅松面(十人) 韓東洙 韓益洙 朴載彦 李時雨 裵元敎 李丽鳳 柳泰德 柳元珪 李承珪 魚貞植

峰潭面(十人) 權逢仁 安元俊 鄭弘鎬 韓宗鎬 金鍾大 徐長河 羅時潤 朴南載 李泰薰

飛鳳面(十人) 趙臣衛 權正洙 李相宇 李圭成 李璟求 金榮漢 李興杜 崔文周 朴鎭琛 洪埈

陰德面(十人) 方斗鉉 木下菊次 韓圭善 洪承禹 金熙默 洪洛裕 白壽昌 朴容國 吳元植 金榮斗

麻道面(十人) 洪鍾裕 趙台植 李昌熙 李會祿 李根華 洪仁裕 金演夏 洪禮厚 李在成 李在致

松山面(十人) 崔弘植 李五應 金炳世 金正玉 鄭秀相 李周冕 盧承佐 金知歡 崔炳惠 洪周善

西新里(十人) 李圭復 洪鍾厚 朴臣成 洪厚敎 鄭鎬寔 鄭榮厚 崔成德 李鍾浩 鄭秉鎭 鄭秉憲

八灘面(十人) 鄭有寶 李演珏 朴任遠 尹仁燮 安命福 吳霽煥 朴來遠 李奎圭 李榮勛 鄭憲漢

長安面(十人) 李相逈 金鎭洙 金然晃 金鍾鎬 徐光煥 吳主鎭 金鶴植 崔東均 權寧一 徐相允

雨汀面(十人) 李廣淵 金然青 金然默 徐丙樂 宋周燮 金宗祿 張大燮 崔炳均 崔允植 金然雄

鄉南面(十人) 申光雨 崔鍾和 佐坂方吉 陳斗 沐成善 朴光勳 姜斯鎬 金昌基 柳晶秀 李炳頫

楊甘面(八人) 鄭東鎬 李壽範 金洪洙 柳晃珏 梁基琉 崔鎭鎬 李秉圭 宋範鎬

正南面(十人) 金正敎 李秉榮 任洪淳 崔道植 林猶九 李興淳 閔元榮 車敦相 金東圭

城湖面(十二人) 宋錫憲 尹泳宋 朴富山 李殷敬 文忠植 金炳培 兪炳植 徐上吉 田中猪藤次 洪淳元 金啓鎬

東灘面(十人) 李熙相 李鍾燮 朴圭東 崔成溥 金炳升 洪浩善 金鍾浩 牟永奐 李元雨 朴勝權

台章面(十人) 洪鍾衡 金勳洙 趙仁行 崔成溥 金鎬濟 高光秉 三宅茂樹 今野新一 尹定源 宋榮世

安龍面(十人) 朴懷裕 崔錫鎬 井坂 崔在以 金昌周 桐淵良藏 朴晉淳 鄭斗陽 李圭鎬

當選謝禮

今般京城府會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愛護를蒙하와不肖가敢히當選의榮을得하엿사기玆에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京城府會議員 金泰潗

當選謝禮 安東邑會議員

林田重男 西村憲郎 邊羽漢 趙極魯 田所喜三郎 栗山茂吉 權五鍾 權泰星 權寧薰 權重烈 權守鍊 金箕潤 金奎東 森岡恒一

005090

水原邑會議員 當選謝禮 (가나다順)

金學培 吉浦英信 李演 李承和 梁奎龍 尹泰重 芓田甫 井川好太郎 青木爲一 崔在燁 韓光鎬 洪吉善 横江吉四 黑岩覺一

當選謝禮 順川面協議員 (無順)

崔欑涉 梶山正 俞昌濬 金冕燮 方學模 趙敬福 韓錫英 金鳳景 李孝烈 尹周聖 文澤振

當選謝禮 扶餘郡林川面協議會員 (無順)

玄相祐 林炳善 趙南壽 申夏撤 金鎭國 黃仁喆 南相宰 趙澤九 趙東鶴 中野善吉

當選謝禮 欽谷面協議員

高元俊 金承濟 李容敎 金昌熙 金東錫 康俊敏 金有聲 李錫復 姜明淳 朴熙舜

當選謝禮

今般踏錢面協議員改選에當하야不肖等이當選되엿삽기紙上으로感謝의禮를表하나이다 五月二十一日

吳東振 朴庚夏 崔鍾恒 鄭元基 池興九 李學鎭 趙宗基 韓潤疇

當選謝禮

今般一面協議員改選에當하야小生等이當選되엿삽기紙上으로感謝의禮를表하나이다

姜達訥 金廣浩 李維採 崔斗憲 許權 崔泰鋌 姜丁寬 文炳贇 陳炳華 韓炳九

當選謝禮

今般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各位의深厚하신援助를蒙하와當選의榮을得하엿사기로紙上으로謹表하나이다

信川郡草里面協議員 (無順)

白樂七 金源澤 李長均 高雲爍 洪鍾憲 禹秉濟 禹相默 禹倘模 金得鳳 柳東輝

少年 六月號를보셧습니까? 거진다나갓습니다 속히 주문하십시요 단十錢

安産のために
ワダカルシユーム錠
母性愛의達成
大阪道修町二丁目 和田勘助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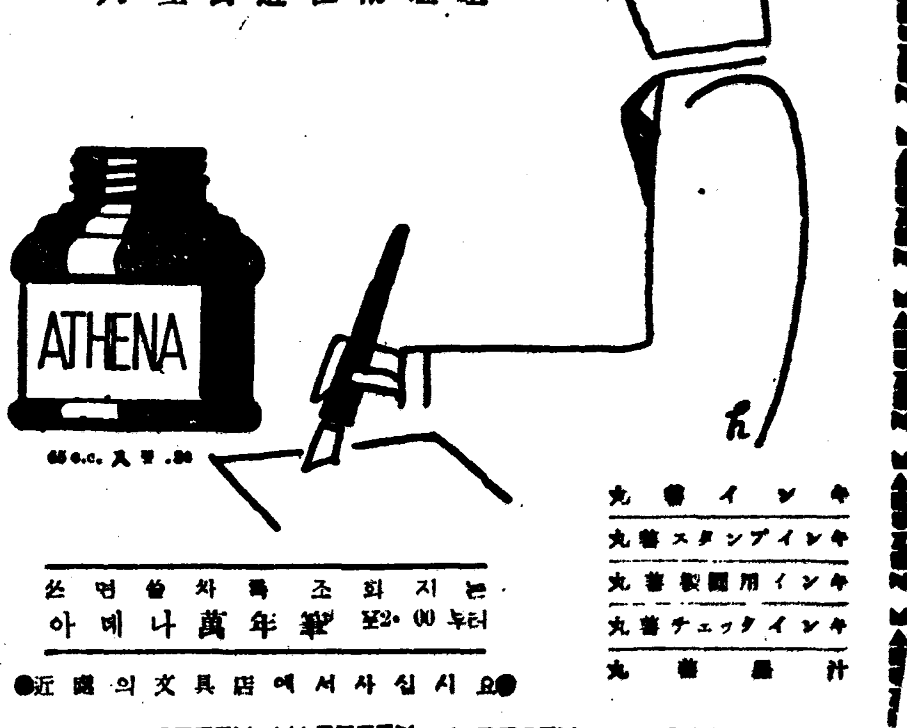
中津式
アイスケーキ機 (新品京城在庫)
中津冷凍機販賣所 京城元町一丁目電停前

國策順應
有利事業
慶尙南北道各地特約店募集
政府의奬勵金을바든世界的大發明完成
軍部御用達 專賣特許 三共防水液
發賣元 大阪三共營業所
南鮮總代理店 太白工業會社

液體殺虫
フマキラー

여드름·주근깨·기미
를 떼기爲하야 맨든藥用크림
ヤパンパンモア

日本의잉크를代表하는
丸善アテナインキ
아메나의淸鮮 아메나의誠實
아메나와함께잇서서──
人生街道恒常坦坦



丸善インキ
丸善スタンプインキ
丸善製圖用インキ
丸善チェックインキ
丸善墨汁
쓰면쓸사록조회지는 아메나萬年筆 2.00부터
近處의文具店에서사십시요
MARUZEN

短篇小說

바다로간다 (17)

金南天 作 / 鄭玄雄 畵

四、「二號間斧」(三)

경숙이가 말을 잠깐 끈엇을 때 영자는 그의 연설이 재미스러워

『선생이 내세운 정견은 뭐유?』

하고 한마디 던저 보앗다. 이러한 영자의 물음은, 듯기엔, —그럼 네영감은 무슨방축한 정견을 세웟섯나—하는뜻으로도 들릴수 잇섯고 또 영자자신으로서도 떡이는 의식치 안핫스나, 다소 빈정거려 보고 시픈 생각이 전혀 업시 던지는 수작은 아니 엿스나 지극히 유쾌한 기분에 안겨 잇는 경숙이는 물론 그런데는 신경이 미치지도 안햇다.

그러므로 그는,

『정견들이야 뭐 별다른것 잇나 매한가지징. 문제는 그러한테 잇는게 아니라…』

하고 계속하여 유쾌로운주가잇섯다.

『요컨대 정작 부민의 대변자가 되어가지구 그가 선거당시에 내걸엇던 약속을 어느도로 실행하는가 또실행할수 잇는가에 달렷는데 지난번부회때에두 조선사람 부회의원이 얼마나 책피스런 질문을 하구 우습꺼리가 되엇는지아아나?』

물론 영자는 그러한것을 알턱이 업다 부회의원이잇는것, 요즘 부회의원 선거가 잇는것가튼건 알고 잇섯스나 그것이 어떠케 된 수작인지는 부끄러우나 별로 관심하지 안햇다. 그러니까 그는 오히려 성경숙이가 그것을 그처럼 잘 알고 잇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말투까지 유식하고 연설조로 된것이 수상하게 생각되기 까지 하엿다.

(사람은 이러케 변하여 지는것인가? 그는 무대에나 『라디오드라마』에서 극작가가 지어준 대사를 외이듯이 그방면에 유식해 젓다. 그지식이나 정열이 결코 빌려온것이 아니고 어느정도까지 제자신의 경험을 거처 나오는것이타면 성경숙이의 지금생활은 확실히 행복된것이 아닐수업다.)

그러케 막연히 느껴보면서

『언니두 참 빠ㅣ의 여급이그런걸 알럽이 뭐간』

하고 대답하엿다. 『빠ㅣ의 여급이 그림젭……』하고 말하는데서 성경숙이는 얼마든지 『히니꾸』를 느낌만도 하것만 그것조차 그는 그대로 넘어버린다.

『모르기는 하지만 그런 창피는 연출하지 안흘거다』

하고 경숙이는 이번에만은 좀 나즉하니 호잣말 처럼 말하엿다. 그는 맛을보는듯이 맥주진을 들어 목을 추기고,

『참 너 강주사 만낫더라니?』

하고 화제를 돌린다.

『응 종로에서 만낫지』

영자는 경숙이의 표정을 드려다 보는듯하다.

『그래 뭐랍디까?』

하고 물을려다가 입밖게 나오려는 말을 꿀꺽 참아 버리고 표정으로만 그것을 나타낸다.

(혹시 강주사가 일전 이야기를 경숙이에게 부탁하야 이러케 그는 나와 만나고 잇는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영자의 가슴속에 이루어지고 잇다.

『오래만에 너 만나보앗노라구 하더라』

경숙이는 이러케만 설명을부친다. 그러나 영자가 그말에아무 대꾸가 업스니,

『강주사가 이번에 힘써서 한 열댓표 어덧다』

하고 경숙이는 첨부하엿다.

『강주사가 열다섯표를?』

하고 새삼스레 놀라는 표정을 지어 보는것이 영자 자신에게도 좀 수다스럽게 생각되지안는배 아니나 그는 이런것을언저리도,

(강주사가 혹시 경숙이에게부탁한거나 아닌가?)

하는 의심을, 활짝 떨어 버리려는 자세를 취해, 보려것이엇다. 진정 경악하여 마지 안는것처럼,

『강주사의 활동이 상당한데, 그래 강주사말을듯는 유권자가 그러케 되더랜나?』

하고 다시 덩다라 보첫다.

『강주사가 안면이야 좀 넓으니, 또 활동두 잘하구. 천사의씨랑 모두 이런 분들이한표씩 주엇다.』

경숙이가 이야기 가운데 천사의이의 이름짜를 넛는것도영자는 그대로 넘겨 버릴수가업다. 경숙이는 물론 아무러치안흔 말을 하듯이 예사대로 말하는것이나 강주사—천사의이—이러케 두사람의 이름과, 그이름을 지금 정철씨의 부인이된 성경숙이의 입으로부터 듯는것과 그러한것이 영자에겐 결코심상하게 들려지지 안는것이다.

그러나 영자는 그저,

『강주사가 한턱 단단히 내섬이로군』

하엿슬뿐, 천사의이의 이름짜우엔 아무러한 인상조차도 남기지 안흐려고 애쓰고 잇섯다.

라디오프로

二十五日(木)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生에모 日用品時勢
▲正午(東) 時報
▲同零時三〇分 뉴-스
▲一時一五分(咸) 講演『여름의만흔外科疾患』 崔明鶴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幼年講話 鄧子와刑 金奉仁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講解『眞正한解放』 神學校 鄭一亭
▲同七時 뉴-스
▲同七時三〇分 講演『改正株式會社法에對하야』 京城覆審法院判事 金〇〇
▲同七時三〇分 講演(咸興)『戰下의花祭를마지하야』 咸興花祭實行副會長
▲同八時(哈爾賓으로부터) 歌劇『白雪姬』 차이코프스키-作曲 哈爾濱市民衛研究會 바라라이카合奏團 哈爾濱交響樂團
▲同八時三〇分 歌謠曲 一、마조아血時 二、미운사랑고은사랑 三、사랑에속고 돈에울고 四、斷腸哀曲 五、青春보내는 六、曠野의달밤 七、無情한밤 南一燕 劉鍾燮 伴奏 京城放送管絃團
▲同九時 野談 『樂志搖恩』 張志浩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番組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三九) 金屬編

第二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基礎英語講座(十九) ▲同一一時(東) 小學生時間『國語』 ▲午後零時五分(東) 小學生時間 ▲同二時(東) 小學生時間 ▲同四時三〇分(東) 大相撲夏場所實況(千秋樂) ▲六時(東) 國史劇 ▲七時三〇分(東) 國民歌謠 ▲同七時三〇分 講演(咸興) ▲同七時四〇分(京) 講演 ▲八時四〇分(城) 三曲 尺八 (山入中) ▲同八時四〇分 俗曲(平壤) ▲同八時四〇分 歌謠와俗謠(淸津) ▲同八時四〇分 尺八合奏(咸興) ▲同八時四〇分 (太夫裡用)

樂壇의衝動·"新響"來演
任東爀君作曲도演奏
東京一流音樂家를網羅한豪華陣

동경(東京)신교향악단(新交響樂團)이 경성으로 온다는 소식은이미 보도한바와 갓거니와이으고 내달팔일에 경성에와가지고십일과 십일일 이틀동안 시내부민관(府民館)에서 연주회를 열기로 되엇다 이번에는 그악단의명지휘자 『로-젠스톡』씨는 사정이 잇서서 오지못하고대신 재등수웅(齋藤秀雄)씨가 『탁드』를잡기로 되엇다 그악단의 『맴비-』는제일 『바욜리니스트』악연헌주([illegible])씨등 동경악단의일류가 망라되엇스며 그연주곡목중에서 중요한것을보면 아래와가튼데 특히우리의 신진작곡가 임동혁(任東爀)씨의 작곡중에서 한곡을뽑아서 연주하리라한다 이악단의 내연은 우리악단에큰 충동을줄것으로 예상된다

▲未完成交響樂—슈베르트
▲세비리아의理髮師—롯시ㅣ니
▲第五交響曲씨短調—베ㅣ토벤

(사진은 위로부터任東爀氏齋藤氏와同樂團一行)

明眸 "푸란씨스"銀幕으로復歸

【할리우드發同盟】수려한모양과 매력잇는연기를 보여주던 『파라마운트』의 『스타-』『케이·푸란씨스』는몃달전에 결혼한다는구실로 사실이족 그회사에대한불평으로 영화계를은퇴한다고 발표해서 『팬』을섭섭하게만들더니 이번에다시영화계로돌아왓다 지금까지 영화계에서 한번은퇴햇다가 다시돌아온배우들은대개 은퇴전의인끼를 회복하지못하고 일이만햇는데 『푸란세스』는과연예외가될수잇슬는지 일반이주목하고잇다 처음나올 영화는『R、K、O』의『사랑의기억』이라고한다

(사진은『푸란씨스』)

※※※ "朝映"에서 "春香祭"를實寫 ※※※

춘향제(春香祭)가 오는 이십륙일 남원(南原)에서 성대하게 거행된다함은 이미보도햇거니와 이번은 특히 이당김은호(以堂金殷鎬)화백의 채판으로된 춘향초상을 안치하게되어 더한층 이춘향제가 이채를 띄게되엇다 이제전을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시내종로(鍾路)삼정목 조선영화주식회사에서는 제작부장 이재명(李在明)씨와 촬영주임 황운조(黃雲祚)씨와 조수권영팔(權寧八)삼씨가 춘향제의 현황을 촬영할작성으로 이십오일 밧차로 남원향발하리라한다

笑話 모범

수신시간에
선생「소년시대에 연필도 책도 못사면서 훌륭히된사람이 잇습니다. 김군 예를 들어보시요』
김군『네"링컨"입니다』
선생『옳습니다. 김군도 "링컨"의 본을 바다야합니다』
김군『본을 바들내두 전 연필두 책두살수잇는데요 뭔』
선생『……』

撮影珍聞集

寫眞을避하는寫眞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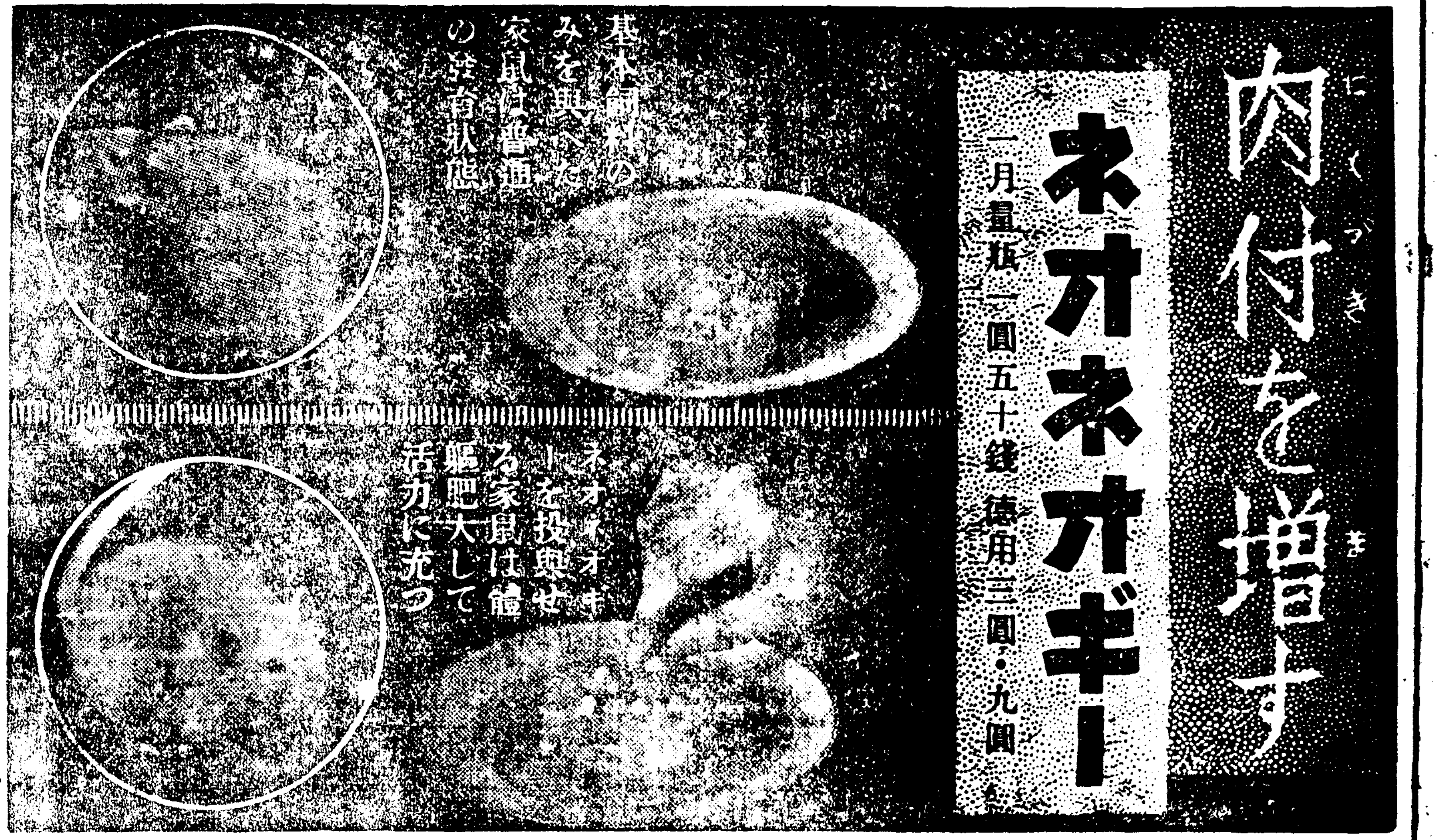
(일리노이스州 록포-드 發同盟通信) 『록포-드』 거리에서 일류사진관으로 평판이놉든 『악셀팍·아손』씨가 최근 죽엇다 그래서 유족들이 장례때문에 씨의사진을내걸려고 하엿스나 살어서는 사진사로써 면만장의사진을 박어주면서도평생 실혀한것이 사진이엇든지라 드디어 『앨범』 가온데에 그의사진은 한장도업섯드라한다

凸問凹答

【問】요즘자동차는 사고를 왜 만히 낼가?

同의 【問】 금붕어가 감기에 안걸리는까닭은?

同【答】함수(含嗽)를 자주하니까.



瘦體·衰弱體·貧血體에

쌀찌는作用을 누구나實驗할수잇다

네오네오기-를먹으면살이찐다고하지만은、살만찌도록 하는것이이藥의本來의效能이아닙니다。

그런대、全身的-特히內臟의活動이强하고榮養이充實하야、호루몬分泌도調整하게되면살이오르는것은當然으로서살찌는藥物이라하는것도當然이겟지오。

네오네오기-의가진體力挽回作用은、幾十回나綿密한動物實驗을行하야、充分히우리들을滿足식히는結果를어덧스나、이것은누구나될수잇스니行하여보십시오。

體의構造가人間과 가튼것으로서、犬、家鼠等이適當하겟지오 單히錠劑를餌中에混合하야주는것으로도좃습니다。

病 或은老衰해서잇는飼犬이라면、더욱効果를明白히잘아십니다 數日後에는顯著히元氣가생기고、體量을增加하게합니다。

이 힘은 네오네오기-에包含되여잇는 新發見의植物호루몬貴重榮養素、造血호루몬等의綜合作用때문으로서 衰弱한분、胃腸病잇는분、貧血인분、體質虛弱한분이 應用하면 정말좃습니다。

購入의注意

正價 三百六十錠入一月量一圓五十錢、德用은三圓、九圓、正價로同價·藥店에有함 但植物호르몬劑는네오네오기-뿐인故로、必히指名購入하시오、直接注文希望者는엽서에代金引換으로注文하시면 全部當所負擔으로送料、代金引換料도 당。到着卽時藥價만支拂하면조타

申込所는 東京日本橋區本町四ノ三

日本微生物研究所

(NN3D-1299)

림독성부인병의근치료법

남편에게 림질기운이 잇으면 반듯이 부인께 전염 되오니 두분이 같이 곳처주십시요!

첫여름이왓건마는 몸이냉하시거나 두통이나고 손발이차며 아래배와 허리가 쑤시고아푸시며 경도가 불순하실뿐만아니라 월경때에는몹시앓게되고 오좀이자즈며 국부가 쓰리고쑤시고 아푸며 대하증(냉증)이 심하신분들은 림독성부인병을 앓고계신 증거입니다

더구나 땀배오르는날에는 그심한 악취로써 몹시 고통을 늣기실줄밋사오니 최근 백발백중으로 림질과 림독성부인병(淋毒性婦人病)이 손쉽게 근치되는 최신화학료제약법(新最化學療法藥劑)가 세계적대발명되야 수는없는 환자를매일구원하고잇는 깃뿐사실이잇읍니다 그것은 世界的으로 칭찬을 받고잇는 내복림균멸살약「자오긴」(ザオキン)이니 매독에대한 六百六號나 活性코로이도沃度劑처럼적확한 치료효과를가진약으로 남몰내 간단히복용하시여서 단시일안에 부인병의증세도개이고 냉증도 없어지는바이오니 本劑를 림질환자께 부인병환자에게 공제하사 日本內地에서는 치림약제의 최고를 점영하야 第一位의 경이적매행(驚異的賣行)의최고의 영광을 찻이하고잇음은 물론이요 우리조선에 재공한지 불과 반년동안에 이약시全鮮의第一位를점영하고잇음은 그진효를증명하는명백한사실입니다

하로에약가 불과二 三十錢

三千里江山방방곡곡에 눈물겨운감사와칭찬으로 환영을받고잇는「자오긴」은 복용하신지三十分이내에 最新化學療法藥劑의특성으로몸전신에 약효가퍼저가면서 림균이활동하고잇는곳을모조리찾어서 죽여버리고 그고장을속히회복식혀주는까닭에 그렇게속히낫게되오니 더구나 우리동양이의체질에 꼭맞은약을 國民健康의向上을위하야 지극히 염가로제공하는만큼 二三의特異體質의분이외에는 무슨약보다도 단시일안에 百發百中으로 근치되오니 속히 병고에서 버서나실여런분께서는 조금도주저마시고 곧복용하여주시사 근치의깃뿜을얻어주시기바랍니다

本劑의發明으로數百種의림질약은물론이요 부인병약이든가 랑약 挿入藥(질구에넛는약)등은 추풍낙엽의격으로떠러저가는사실을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藥價 五〇錠…一圓五十錢 一〇〇錠…二圓八十錢 二五〇錠…六圓五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함

ZAOKIN

內服治淋新藥 ザオキン (자오긴)

東京市神田區神保町三 アルス藥品部 振替東京七一二一九

製法專賣特許 粉末單一品으로물에녹여서곳드리는

納言 ナゴン

帝國大學化學實驗室에서 研究完成!

ナゴン은從來의지어만製劑와는 其製法을全然달리하야 非常히 衛生的으로進步改良되엇스므로 오래使用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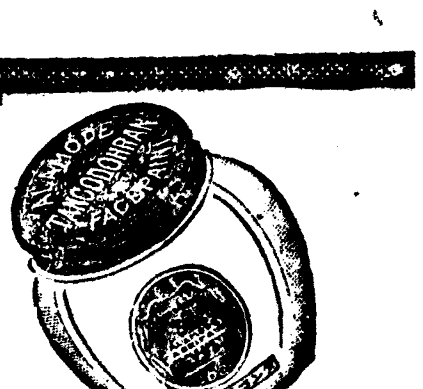
●絶對로 視力이 衰치안습니다
●心臟과腎臟이 害하지안습니다
●血壓이 놉지 안습니다
●어깨와 목이결리지 안습니다

그리고 簡單하야잘드려지고 毛髮에는오래가고 살에무든것잘버서지고 머리가부서지지안는 자랑할 發明品이오니 安價品에 迷惑치말고一生의 健康과毛髮을爲하야 一日이라도 速히ナゴン을 愛用해주십시요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二 宇野達之助商會藥品部 定價四〇錢·六〇錢
全鮮藥房에잇소 品切時는直接注文하시요 振替大阪五一一三番

日活·D·O 轟村明子孃

●얼굴빛에따라 個性美를노리는 魅力의七色有함



어쩌문 어쩌문 하고놀낼만치 빗나는健康美

評判인三重美作用으로、特急簡便케……

침울한表情도 씨슨듯變하야 참다운健康魅力이 소사나는 近代化粧料입니다

タンゴドーラン (당고도ー랑)

크림·化粧水·白粉을 一品에綜合한特急簡便한近代魅力化粧料!